

# 한국문화교류 소식

50호 2023년 12월 15일 발행·발행인 위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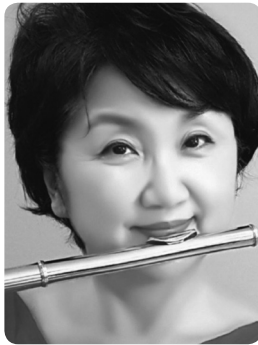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04173 서울시 마포구 삼개로 16, 408호(도화동, 근신빌딩 신관)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 일하며, 노래하며, 사랑을 나누는 교보생명합창단 제15회 자선음악회를 마치고...!



강영실

교보생명FP합창단장

세상 모든 일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이들의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외할머니(故 전용주 님)께서는 어린 손녀의 손을 이웃의 피아노 선생님 손과 꼭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때가 60여 년 전인데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후 꼬마 재롱둥이는 음악 선생을 시작으로 오케스트라 단원, 청소년 오케스트라단 창

단, 동문 합창단원, 성당의 성가대 지휘자, 현재 몸담고 있는 회사 교보생명 합창단 단장까지 온통 음악으로 둘러싸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외할머니는 소나무처럼 강인한 삶을 사셨지만, 손녀는 음악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염원으로 소나무보다는 향기를 품고 열매 맺는 나무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믿음과 바람대로 저는 오늘날 음악을 벗 삼으며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외할머니를 소나무 같은 할머니로 기억합니다. 먼 훗날 저는 손자 주한 프란츠의 기억 속에 어떤 추억을 남길 수 있을까요? 내 손자는 저를 '향기와 열매를 품은 나무 같은 할머니'로 기억해주길 바랍니다.

ICKC(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는 남편이 군 생활을 뒤로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인생 후반기의 멘토님들을 만날 수 있었던 귀하고 소중한 단체입니다.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 중 참으로 보람되고 큰 즐거움인 교보생명FP합창단 자선음악회의 경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 노래로 사랑을 전하는 교보생명FP합창단

“한 국가의 문화 발전 수준을 보면 국력이 보인다.”  
“기업의 예술, 문화, 체육 분야의 후원을 보면 사회 공헌도를 알 수 있다.”

저는 교보생명FP합창단 단장으로 일하며 자선 음악회를 통해 재능 기부, 불우이웃 지원 등 사회에 공헌할 수 있음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합창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보다 ‘하모니’입니다. 제가 포함된 합창단원 모두는 우리의 하모니가 널리 퍼져 나가 진정한 나눔과 배려가 실천되는 사회, 구성원 모두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단원 모두가 생활 전선에서 치열하게 일하면서도 음악으로 하나 되어 자선 음악회를 열어 이를 통해 모인 성금 전액을 항상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아주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3천 만 원이라는 성금이 모여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참가한 직장선교예술제에서는 금상을 수상했고 보험선교연합회 추수감사절예술제에서는 사랑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받은 상금 또한 합창단원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전액 기부하였습니다.

11월 6일(월) 광화문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 “제15회 교보생명FP합창단 자선음악회” 공연은 코로나 막바지에 여러모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많은 분들의 염원 속에 이루어진 음악회였습니다. 당시 불 꺼진 객석에 불이 들어오며 환해진 관객석을 본 순간 가슴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이렇듯 아름다운 노래 마음껏 부르며 앞으로 더욱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애국하시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계신 ICKC 위호인 이사장님과 박의근 재정위원장님을 비롯해 강석재, 이효진, 장정용, 조춘연 이사님, 심의표, 이효진, 정순영 운영위원님, 그리고 전영섭, 박원출 두 분 감사님께도 깊은 존경과 사랑을 보내며, 이 시대의 어른이자 멘토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ICKC 회원으

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저도 제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더욱더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 것을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처럼 ICKC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모든 ICKC 회원 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 해피데이!



노래로 사랑을 전하는 교보생명FP합창단


노래하며, 일하며 삶이 더욱 풍부하고 즐거워지고, 어려운곳에 기부까지 하는 참 행복한 교보생명FP합창단입니다.

보람있고,즐거운 참보험정신을 실천하는 교보생명FP합창단 제15회 자선음악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보생명FP합창단은(1996년 창단) 그동안의 활동과 봉사 재능기부 불우이웃 지원 자선음악회 등을 통해 어려운곳과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보람과 행복을 느끼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합창의 가장 큰 매력은 하모니입니다.

교보생명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멀리멀리 아름답게 퍼져나가 진정한 나눔과 배려 존중의 사회가 되리라 기대하며 2023년 제15회 자선음악회 또한 따뜻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글



강영실 단장

2023년 11월 6일 교보생명FP합창단 강영실 단장

중한 꿈이 이어지는  
**KYOBO**  
교보생명

교보생명과 관계사 임직원 여러분, FP 여러분, 각 지역 본부 및 고객 여러분들 외 후원에 적극 동참해 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제15회 교보생명FP합창단 자선음악회 인사글

# 태권도와 올림픽의 영원한 동행

## - 올림픽 박물관 태권도 동상 제막식 -



강석재

ICKC 이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운영하는 올림픽박물관에 태권도 동상이 세워졌다. 세계태권도연맹(WT)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고 태권도와 올림픽의 영원한 동행을 기원하는 조형물이다.

IOC는 11월 15일 오후 7시30분(한국시각) 스위스 로잔의 올림픽박물관에서 태권도 동상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조정원 WT 총재(ICKC 총재)를 비롯해 세르미양 응 IOC 부위원장, 김재열 IOC 위원, 리카르도 프라카리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회장, 레온즈 에데르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회장 대행 등이 참석했다.

태권도계에서도 이동섭 국기원장과 이종갑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이 뜻깊은 행사에 동참했다. 제막행사 직후엔 스위스태권도협회와 이탈리아태권도협회가 함께 마련한 태권도 시범 행사가 열렸다.

태권도 조형물이 자리 잡은 올림픽박물관은 지난 1993년 IOC 본부가 위치한 로잔에 세워졌다. 역사적으로 귀중한 올림픽 관련 물품을 보관·전시 중인 곳으로 해마다 25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이기도 하다.

동·하계를 통틀어 총 35개에 이르는 올림픽 정식종목(하계 28개·동계 7개) 중 올림픽박물관에 조형물을 설치한 종목은 태권도를 포함해 총 10개 뿐이다. 태권도에 앞서 육상, 레슬링, 체조, 축구, 농구, 사이클, 양궁, 하키, 유도 등 9개 종목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박물관 앞마당에 들어섰다. 태권도 조형물은 박물관 입구 근처이자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유명 조형물 ‘올림픽의 불꽃(Olympic Flame)’ 바로 옆에 자리 잡았다.

태권도는 지난 2000년 시드니 대회부터 올림픽 정식 종목 지위를 얻었다. 타 종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올림픽 정식 종목군에 합류한 역사가 짧다. 그럼에도 IOC가 조형물 설치를 허락한 건 WT 창

립(1973년) 이후 50주년을 맞이한 현재까지 태권도 보급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 결과다. 아울러 2000년 이후 오는 2028년 LA 올림픽까지 8회 연속 정식 종목 자격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진화한 태권도의 노력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WT 관계자는 “올림픽박물관 내에 조형물을 세운 종목들은 근대 올림픽의 역사와 함께 했거나 또는 IOC가 올림픽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했

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올림픽박물관에 들어선 태권도 조형물은 올림픽 코어 스포츠로서 태권도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올림픽박물관에 들어선 태권도 조형물은 이탈리아 조각가 밀로스 이폴리티(40)가 1년여 제작기간을 거쳐 완성했다. 25cm 두께의 팔각형 받침대 위에서 두 명의 태권도 선수가 서로에게 뒤돌려차기를 시도하는 박진감 넘치는 장면을 담아냈다. 헤드기어에 전자호구를 착용한 모습으로 ‘올림픽 태권



◀ IOC 올림픽박물관 태권도 동상 제막식에 참석한 조정원 WT 총재(왼쪽)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세계태권도연맹(WT)의 차기 슬로건 ‘Sport of Hopes and Dreams’ 문구가 새겨진 IOC 올림픽 박물관 태권도 동상




도'를 향상화했다.

실제 올림픽 경기장과 똑같은 팔각형 모양의 반침대 모서리 표면에는 태권도에 참여하는 5개 대륙의 이름, WT 및 태권도박애재단(THF) 엠블럼과 함께 WT의 차기 슬로건인 'Sport of Hopes and Dreams(희망과 꿈을 주는 스포츠)'라는 글귀를 담았다.

제막 행사 직후 바흐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올림픽박물관에서 태권도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보게 돼 영광스럽고 기쁘다”면서 “태권도 동상은 올림픽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태권도가 굳건한 위상을 확보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권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목이자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매력적인 스포츠”라면서 “이 모든 변화는 조정원 WT 총재 겸

THF 이사장의 뛰어난 비전과 리더십에서 비롯됐다”고 칭찬했다.

답사에 나선 조정원 WT 총재는 “한때 올림픽 종목 퇴출 이야기가 나올 때 태권도가 항상 먼저 거론되던 시기가 있었지만, 전 세계 태권도인들과 손잡고 과감한 개혁과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이어간 끝에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냈다”면서 “전자호구, 비디오 판독 시스템, 팔각형 경기장, 공격 지향적 점수 개편 등 태권도의 꾸준한 변화 노력은 IOC 내에서도 우수 혁신 사례로 손꼽힌다”고 말했다.

이어 “올림픽박물관에 태권도 정신을 보여주는 조형물이 들어선 건 여러 가지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태권도는 경기복 개선, 혼성 단체전 확대, 버추얼 태권도 도입 등 진화를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강석재 ICKC 이사, 제1회 노마드 GCS컵 국제태권도대회 참석

강석재 ICKC 이사가 지난 10월 8일(현지 시간)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린 제1회 노마드 GCS 컵 국제태권도대회에 GCS 국제본부 사무총장의 자격으로 참석했다. 키르기스스탄 태권도협회와 밝은사회클럽(GCS) 국제본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 개막식에서는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WT) 겸 GCS클럽 국제본부 총재가 축하 인사말과 함께 챌린지 이벤트에 영상으로 참가했다. 조 총재는 이날 축하 영상 메시지에서 “태권도를 사랑하는 학생들이 많이 참가해 의미가 크다”며 “전 세계 태권도가 죽들이 즐기고 있는 ‘플레이 태권도 챌린지’에 적극 참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 플레이 태권도 챌린지는 스포츠동아와 한문화재단,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가 후원하는 온라인 숏폼 영상 챌린지이다. 태권도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한편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동참을 격려하기 위해 7월에 시작됐다.



▲ 제1회 노마드 GCS 컵 국제태권도대회에서 인사말 하는 강석재 ICKC 이사

# 태권도는 평화의 친구

- 태권도박애재단, 2023 IOC 올림픽컵 수상 -



▲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오른쪽)이 수여한 'IOC 올림픽컵'을 들어 올리고 있는 조정원 WT 총재 겸 THF 이사장

세계태권도연맹(WT)이 설립한 태권도박애재단(THF·이사장 조정원)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제정한 '올림픽컵(Olympic Cup)'을 받았다.

조정원 WT 총재(ICKC 총재) 겸 THF 이사장은 11월 15일 오후 8시(한국시각) 스위스 로잔의 올림픽박물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전 세계 태권도 가족을 대신해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으로 부터 올림픽컵을 받았다. 해당 트로피는 IOC 본부에 영원히 보관되며 수상 단체에게는 청동 장식 액자와 상장이 제공된다.

이날 행사에는 조 이사장과 바흐 위원장을 비롯해 세르미앙 응 IOC 부위원장, 김재열 IOC 위원, 리카르도 프라카리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회장, 레온즈 에데르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회장 대행 등이 참석했다. 이동섭 국기원장, 이종갑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등 태권도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올림픽컵은 ‘근대올림픽의 아버지’ 피에르 쿠베르탱 남작 주도로 지난 1906년 제정돼 올해로 117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아마추어 스포츠 보급 및 올림픽 발전에 공헌한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해 매년 수여한다. 통상적으로 올림픽조직위원회 또는 개최국(개최도시), 국가 올림픽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열린 지난해의 경우 중국 국민(Peopl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드물게 스포츠클럽이나 학교, 신문사, 국가 스포츠 행정기관 등이 상을 받기도 한다. 21세기에는 케냐의 킵 케이노 스쿨(2001년), 스위스의 알링기 요트레이싱팀(2003년), 미국의 레이크플래시드 동계올림픽 박물관(2005년) 등이 수상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THF는 2000년대 이후 올림픽 개최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네 번째 수상 사례로 기록됐다.

THF가 상을 받은 건 태권도를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THF는 WT와 손잡고 전쟁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 청소년들에게 태권도를 무상으로 가르치는 교육 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태권도 동작과 정신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난민들이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도록 돕기 위해서다.

올해 초에는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과 함께 요르단과 시리아의 난민 캠프에서 태권도와 야구를 함께 하는 스포츠 축제 ‘호프 앤 드림스(hopes and dreams)’를 열기도 했다. 해당 행사에는 난민 2,3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지난달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제141차 IOC 총회에서는 바흐 위원장이 태권도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스포츠 종목의 우수 사례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바흐 위원장은 “태권도가 전 세계 난민을 돕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스포츠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태권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찬사를 보냈다.

바흐 위원장은 “IOC는 올림픽 스포츠의 인도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단체에 매년 올림픽컵을 수여한다”면서 “태권도는 IOC의 신념과 함께 하는 종목이다. 스포츠의 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전 세계 난민 캠프에서부터 올림픽 무대에 이르기까지 올림픽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원 WT 총재 겸 THF 이사장은 “태권도는 희망과 꿈이 있는 스포츠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며 모두를 환영한다”면서 “7년 전 (요르단의) 아즈락 난민 캠프에 태권도 센터를 개설한 이후 검은 띠를 획득한 난민 청소년 100명을 배출했다.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로서 그들과 함께 하며 희망과 꿈을 제공하는 게 태권도의 정신이자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난민 선수들이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태권도 메달리스트가 되는 장면을 꿈꾼다”면서 “쉽지 않은 목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네덜란드에서 한국어의 땅을 넓혀가다



김 경 은

Korean Language & Cultural Center in Nederland

네덜란드는 북서 유럽에 위치한 작지만 저력 있는 나라다. 국토의 25%가 해수면보다 낮지만, 바다를 막아 국토의 20%에 해당하는 땅을 넓혔다. 오죽하면 신은 세상을 만들었고 네덜란드인은 땅을 만들었다는 말이 있겠는가! 아시아에서 불던 한류 열풍은 몇 년 전부터 유럽대륙을 강타했고 좀처럼 열리지 않을 것 같던 네덜란드도 K-POP과 한식에 빛장을 풀었다.

2017년 여름 나와 아이들은 네덜란드인 남편을 따라 에인트호벤으로 이주했다. 에인트호벤은 네덜란드의 실리콘벨리라 불리며 세계 최대 반도체 하드웨어 회사 ASML 본사를 비롯 다양한 다국적 회사들이 모여 있다. 도시 자체가 하나의 지구촌이

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뒤섞인 'Melting Pot'이다.

안타깝게도 네덜란드에는 한국 문화원이 없다.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교는 한국학과가 있는 유일한 대학교다. 한국어 교육 대부분은 한글학교 중심으로 이뤄진다. 네덜란드에는 암스테르담 한글학교, 로테르담 한글학교, 그리고 에인트호벤 한글학교 3곳이 있다.

나는 2019년 에인트호벤 한글학교 창립 구성원으로 한국어 교육 현장에 발을 디뎠다. 3살 때 한국어를 떠난 딸아이에게 한국어를 배우게 하고 한국 학교 경험을 하게 하고 싶어 교사에 지원했다. 그런데 나의 가슴에 작은 불씨 하나가 번쩍하더니 결국 그 불씨는 훨훨 타올랐다. 그해 나는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 문화학과에 편입하여 한국어 교육을 전공했다. 남다른 나의 열정과 무모함 때문에 나는 가정주부, 대학생, 한글학교 교사, 엄마, 네덜란드어를 배우는 학생 신분으로 2년간의 혹독한 강행군을 해야만 했다.

2022년 졸업과 동시에 1인 한국어 문화 센터 등록을 했다. 2019년부터 토요일에는 한글학교 교사, 주중에는 동네 근처 대안학교에서 고등학생 3명과 함께 한국어 수업을 했다. 네덜란드 공교육 시스템에서 한국어는 제2외국어 선택 과목에 해당되지 않

는다. 그렇지만 대안학교나 사립학교에서는 가능하다. 학생들이 너무 열정적이어서 수업 시간마다 내가 에너지를 얻고 왔다. 2021년에는 온라인 성인 학습자 수업을 시작으로 미국 다문화 청소년 4명과 함께 1년 동안 한국어 수업을 진행했다. 그 중 3명은 지난해를 한국 방문 때 만났다. 정말 기쁘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반가웠다.

성인학습자 대부분은 취미로 한국어를 배운다. 학기 종강 파티는 우리집에서 한식으로 마무리한다. 한번은 네덜란드어 교사 양성 과정을 밟고 있

는 학생들 수업에 초대된 적이 있었다. 한국어 수업 시범을 보이고 제2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입장이 돼서 목표 언어의 문화를 이해해 보는 시간이었다. 새로운 경험이어서 나도 즐겁게 진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한 초대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2023년은 감사할 게 많은 해이다. 세종학당 온라인 교사로서 전세계 한국어 학습자를 만날 수 있었고, 수업 사례 발표에서 대상을 받는 영광까지 안았다. 해외에서 한글학교 교사가 아니면 교사 연수나



▲ 필자의 네덜란드 한국어 수업 모습과 한국 홍보 활동

재교육을 받을 기회는 전무하다. 이번 여름 세종학당 세계 한국어교육자 연수와 전주 전통문화연수를 다녀올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했다. 또, 에인트호벤 국제학교 모국어 박람회에도 초대받아 한국어도 방과 후 수업으로 받을 개설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아쉽게도 올해는 인원 부족으로 받을 개설할 수 없었지만 내년을 기대해 본다.

2024년 나에게는 작은 두 가지 소망이 있다. 첫 번째는 정치, 종교, 인종을 떠나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

들고 싶다. 두 번째는 4천여 명의 한국인 입양 동포를 위한 한국어 과정을 만들고 싶다. 얼마 전 지인을 통해 입양인 협회 임원 중 한 분을 만났다. 입양인 동포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잘 녹아 든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부디 나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란다. 네덜란드인들이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고 북서유럽의 복지국가를 이룬 것처럼 나의 한국어 교사 정복기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실을 맺을 것이다.



## 2023년 후원하여 주신 분

2023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이 헛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영광, 강영실, 강재근, 고륜희, 구병진, 김건길, 김복음, 김소진, 김성열, 김시범, 김영규, 김용구, 김용준, 김은자, 김재평, 김정수, 김정일, 김정택, 김진원, 김창욱, 김형중, 김호일, 김홍석, 노승락, 도무회, 박기연, 박미나, 박미화, 박원출, 박의근, 박인숙, 박청수, 배대환, 성효동, 송수식, 오일호, 유영찬, 유자효, 이병욱, 이상철, 이석복, 이석중, 이성호, 이영섭, 이용선, 이창걸, 이행로, 이항구, 이현록, 이효정, 이효진, 장정용, 전영섭, 정경수, 정상설, 정순영, 정인설, 정진화, 정현관, 조춘연, 추호석, 최 광, 표재순, 흥경자, 흥계화, 황경애, 동송갤러리, (주)동우들, (주)루이제, (주)세협엔터프라이즈, 수풍산업(주), (주)신동, (주)아트코리아, 양양운수(주), 포스코DX, (주)P&H

가나다순,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15일까지

총액 233,134,2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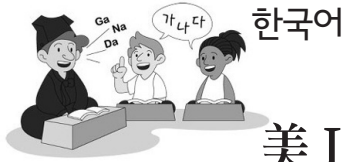
###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에 의해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 전액 손비 인정됩니다.

ICKC  
홈페이지  
및  
회원가입  
안내

ICKC는 회원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ckc-seoul.net>입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단체의 공지사항 및 최근 활동 현황, 한국어·태권도 관련 주요 뉴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소식지 역시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ICKC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 주시거나 ICKC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연락처는 본 소식지 1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한국어

## 美 LA 곳곳서 한글날 기념... 시의회 '10월 9일 한글날' 선포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티칼리지(LACC · 총장 아마누엘 게브루)와 로스앤젤레스시가 한글날(10월 9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LACC는 지난 10월 5일(현지시간) 캠퍼스 내 제퍼슨홀에서 미국 공립대로는 처음으로 세종대왕 동상을 제퍼슨홀 광장 입구에 설치하고 제막식을 연다고, 10월 2일 임페리얼 패밀리 컴퍼니가 밝혔다. 제막과 함께 한국어반 수강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알릴 계획이다. 이 대학 한국어반 수강생은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막식에는 프랜시스코 로드리게즈 LA커뮤니티칼리지교육구(LACCD) 의장을 비롯해 김영완 LA총영사,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손자 이석 황세손 등이 참석했다.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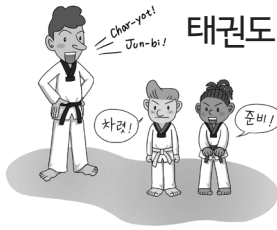
한편 LA시의회는 10월 6일 오전 10시,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선포했다. 결의안 시의회 통과를 한인 존 이 시의원이 추진했다. LA시는 이날부터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기념한다.

[기사출처]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2023/10/02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7044600371?section=search>



▲ LACC에 세워질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이석 황세손(왼쪽)과 마이크 혼다 전 연방하원 의원 [사진 임페리얼 패밀리 컴퍼니 제공]



## 난민 도운 세계태권도연맹, 피스 앤드 스포츠 어워즈 수상

세계태권도연맹(WT)이 10월 1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피스 앤드 스포츠 어워즈 2023'(Peace and Sport Awards 2023)에서 '올해의 주도적인 격투 스포츠'(Combat Sport initiative of the year)상을 수상했다.

WT는 전 세계 난민촌 및 자연재해 피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태권도 무상 교육 지원 사업을 수행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WT는 올해 초 태권도박애재단(THF),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과 함께 요르단, 시리아 난민캠프에서 멀티 스포츠 축제를 열어 주목받기도 했다. 당시 행사엔 아프가니스탄 난민팀 등 300여명이 참가해 전 세계 이목을 끌었다.

조정원 WT 총재는 "태권도는 난민을 돕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단체와 협력해 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08년 창설된 피스 앤드 스포츠 어워즈는 전 세계 평화와 봉사에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권위 있는 상이다. WT는 2016년 올해의 경기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기사전문출처]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2023/10/19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9041900007?section=search>



▲ 조정원 WT 총재(가운데)가 '피스 앤 스포츠 어워즈 2023'(Peace and Sport Awards 2023) '올해의 주도적인 격투 스포츠'상을 수상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세계태권도연맹 제공]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 ■ ICKC 사절단, 스리랑카 ‘2023 GCS 국제대회’ 및 ‘GCS & THF Asia 태권도 대회’ 참석

박의근 ICKC 재정위원장 겸 동물복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ICKC 사절단이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2023 GCS 국제대회’ 및 ‘GCS & THF Asia 태권도 대회’에 참가했다. 본 행사는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GCS International)에서 개최하는 연례 대회로, 김용구 ICKC 고문 겸 (주)신동 회장, 박의근 ICKC 재정위원장, 이석복 차세대전략연구원 이사장(예비역 소장), 이향구 진일세무법인 대표 그리고 GCS 사무총장이기도 한 강석재 ICKC 이사 다섯 분이 ICKC 사절단 자격으로 본 대회에 참석했다.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는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의 선친인 故 조영식 박사(경희학원 설립자)의 밝은사회운동을 바탕으로 1979년 설립된 단체로 1981년 UN “세계 평화의 날”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1997년에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 지위를 획득해 국제 NGO로서의 위상을 인정받고 있는 세계적 단체이다. 현재는 조정원 WT 겸 ICKC 총재가 GCS의 총재를 역임하고 있다.

‘2023 GCS 국제대회’는 지난 12월 8일 스리랑카 콜롬보 갈라다리(Galadari) 호텔에서 약 70명의 GCS 회원이 현장 그리고 40개국에서 50여 명이 화상으로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에 앞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콜롬보 수가타다사(Sugathadasa) 실내체육관에서 스리랑카 역사상 최대 규모로 열린 제1회 GCS 콜롬보 국제오픈태권도대회 및 제1회 태권도박애재단 아시아(THF Asia) 국제태권도대회에는 총 10개국에서 1500여 명의 선수 및 임원들이 참가했다.

ICKC 사절단은 이 두 행사에 모두 참석해 밝은사회클럽의 국제대회 개최 및 태권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ICKC 사절단을 초청한 조정원 총재 및 대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이날 국제대회 행사에서 지난 7월 21일 ICKC가 밝은사회클럽에 후원했던 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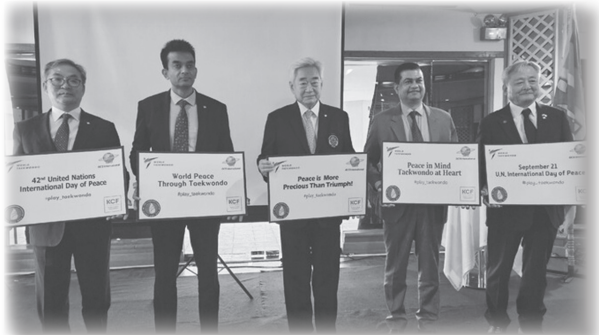


▲ ‘GCS & THF Asia 태권도 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도발전기금 미화 1만 불의 전달식이 열려 ICKC의 위상을 드높였다. 조정원 총재는 본 태권도발전기금 전달에 감사를 표하며 전 세계 태권도 발전 및 난민이나 고아 등에 대한 태권도 교육 보급을 위해 물심양면 후원하는 ICKC 박의근 재정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ICKC 홍보 영상도 상영되어 ICKC의 여러 활동과 사업을 전 세계 참가자들에게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GCS 국제대회 참석자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등 전쟁과 분쟁의 조기 종식을 촉구하는 '2023 GCS클럽보평화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GCS클럽 국제본부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는 2024년 GCS국 제대회는 키르기스스탄, 부루나이-말레이시아, 또는 네팔 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스리랑카에서 공식일정을 마친 ICKC 사절단은 뜻깊었던 여정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했다.



▲ 스리랑카 현지에서 '2023 플레이어태권도 챌린지 이벤트'에 동참하고 있는 조정원 WT 겸 ICKC 총재(가운데)와 박의근 ICKC 재정위원장(맨 오른쪽)



▲ 조정원 총재와 ICKC 사절단이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석재 ICKC 이사, 이항구 진일세무법인 대표, 박의근 ICKC 재정위원장, 조정원 WT 겸 ICKC 총재, 이석복 차세대전략연구원 이사장(예비역 소장), 김용구 ICKC 고문(주)신동 회장.



▲ 왼쪽부터 박의근, 이석복, 김용구, 이항구 네 분의 ICKC 사절단이 태권도 대회를 관람하고 있다.

### ■ 9월 문화탐방, 창경궁 탐방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방문

지난 9월 19일(화), 서울도보관광 ‘사극의 주인공처럼’ 프로그램을 통해 창경궁을 탐방하였다. 창경궁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면서 동행한 문화해설사의 유쾌하고 상세한 설명과 함께 그에 얽힌 역사, 이야기, 전설도 흥미진진하게 알게 되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창경궁 탐방을 마치고 ICKC 박의근 재정위원장의 인도로 창경궁 앞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을 방문하여 직원 분들과 환담하고 대사관 곳곳을 둘러보았다. ICKC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한 환경회의에도 참가하고 여러 차례 우즈베키스탄 대사관과 각종 행사에 함께 협조하는 등 우즈베키스탄 대사관과 오랜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이에 대사관 직원 분들



▲ 창경궁 명정문 앞에서 참가자 단체 촬영

도 ICKC 회원 분들을 친절하게 환대했다. 창경궁에 더해 우즈베키스탄 대사관까지 방문했던 탐방을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며 회원 간 친목을 다진 뒤 다음 문화탐방 참석을 기약하며 즐거운 탐방을 마쳤다.

### ■ 11월 문화탐방, 몽촌토성과 한성백제박물관 탐방

지난 11월 23일(목), 송파구 올림픽공원 안에 자리한 몽촌토성과 한성백제박물관을 탐방하였다. 본 탐방 코스는 “서울도보관광” 코스의 하나로, 몽촌토성을 중심으로 도심속의 휴식공간인 올림픽공원을 돌아보며 삼국시대 역사의 숨결과 올림픽공원의 후련한 풍경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아울러 한성백제박물관을 방문해 삼국 시대 한강을 둘러싸고 펼쳐진 선조들의 역사적, 문화적인 활동들을 실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 분들이



▲ 올림픽공원에서 참가자 단체 촬영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참석하여 가을 산책을 겸해 즐겁게 답사했고, 탐방 후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회원 간에 즐겁게 담소를 나누었다.

### ■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방문 및 조정원 총재 예방(禮訪)

지난 12월 12일(화), 서울시 중구 부영태평빌딩 10층에 위치한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이자 ICKC의 총재이기도 한 조정원 총재를 찾아뵙고 감사 인사도 드리고, 앞으로도 세계태권도연맹과 ICKC의 지속적인 친선과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방문은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이기도 한 강석재 ICKC 이사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정원 총재는 위호인 ICKC 이사장을 비롯해 전원 참석한 ICKC 임원진을 환영하며 감사를 표했고 전날 새벽에 귀국하며 일정을 마쳤던 스리랑카 GCS 국제대회 행사의 이모저모와 소감을 알렸다. 특히 매년 태권도발전기금 전달로 전 세계 태권도 발전에 힘쓰고 있는 ICKC의 활동을 특히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서 올해로 창설 50주년을 맞은 세계태권도연맹의 총재로서 소회를 밝히고 앞으로도 세계태권도연맹과 ICKC 과 올림픽 스포츠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금처럼 발전적으로 협력하자고 했다. 세계태권도연맹의 전 세계 활동상을 담은 여러 홍보영상을 함께 관람한 뒤 단체로 기념촬영하고 본 방문을 마쳤다.



▲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를 방문한 ICKC 임원진과 조정원 총재(앞줄 가운데) 및 세계태권도연맹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 어울사랑 송년음악회 참석

지난 12월 12일(화),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방문을 마치고 위호인 ICKC 이사장을 비롯해 임원진은 '2023 어울사랑 송년음악회'가 열린 서울시 서초구 SCC 선아트홀을 찾았다. 이번 송년음악회는 ICKC 회원이자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이병욱 교수가 이끄는 (사)마리소리음악연구원이 주최하고 ICKC가 소정의 금액을 후원했다. 전 세계 각국의 유명한 노래 위주로 공연된 이번 음악회는 음악으로 세계 각국을 여행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여느 해보다 더 흥겨운 분위기로 가득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참석자 모두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즐기며 서로 송년 인사를 전했다



▲ '2023 어울사랑 송년음악회' 단체 촬영

### ■ 이효진 ICKC 운영위원, 자작곡으로 제4회 싘타와 함께 동요페스티벌 참가

이효진 ICKC 운영위원이 자신의 자작곡으로 지난 12월 15일(금) 서울시 강남구 대치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제4회 싘타와 함께 동요페스티벌'에 참가했다. (사)색동회가 주최한 이번 동요페스티벌은 예선을 거쳐 선정된 자작 동요를 10여 곡을 어린이 개인이나 팀이 부르는 대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효진 운영위원이 작사작곡하고 지도한 노래 제목은 <저요 저요 손들면>으로, 초등학교 1학년 조 해 어린이가 귀엽고 당당하게 불러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효진 운영위원은 앞으로도 어린이 문화와 노래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음악가분들과



▲ '제4회 싘타와 함께 동요페스티벌' 포스터

함께 주한외국대사관에 요청해 외국 어린이 동요 악보도 받고 우리 창작 동요 보급과 협업을 위해 더욱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한다.

### ■ 김호일 ICKC 회원의 손녀 김지수 양, '2023 제11회 나의꿈 갈라'에서 영국 대표로 발표

ICKC 회원이자 재정위원인 김호일 회원의 손녀 김지수 양(16)이 지난 11월 10일~12일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나의꿈국제재단(이사장 손창현) 주최 '2023 제11회 나의꿈 갈라'에서 영국 대표로 발표했다.

현재 영국 더럼(Durham)에 거주하고 그 지역 북동부한글학교 소속인 김지수 양은 지난 9월 런던에서 있었던 '나의 꿈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이번 미국 휴스턴 행사에 영국 대표로 초대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지수 양은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던 '나의 꿈 발표'에 다른 두 명의 학생과 함께 나서 "꿈 발표회에 와서 나를 찾는 여정을 떠나게 되었다"며 책을 통해 더 다양한 꿈을 쫓아 자신처럼 "독자가 꿈을 찾고 이루도록 이끄는 글로벌 작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언어를 이해해야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문화를 이해해야 그들의 꿈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 현재 영어, 독일어, 라틴어, 그리스어 등 여러 언어를 공부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수 양은 꿈은 나이나 공간, 시간 제한이 없으며



▲ '나의꿈 발표'에 나선 김지수 양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꿈은 멈추지 않는다고 하며 "여러분! 같이 꿈을 꾸어 보실래요"라고 외치며 발표를 마쳤다. 이번 갈라 행사에는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브라질, 한국, 미국 등 11개국에서 초대된 15명의 청소년과 기성세대 등 130여 명이 참가했다.

2012년 창단된 '나의꿈국제재단'은 전 세계 한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한국어로 발표하는 축제를 통해 인재를 발굴하고 장학금을 수여함으로써 차세대 한인 리더십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단체이다. ICKC도 '나의꿈국제재단'에 지난 2017년 소정의 장학금을 후원한 바 있고, 손창현 이사장이 얼마 전 본 소식지 48호에 칼럼도 쓴 인연이 있어 이번 김지수 양의 성취가 더욱 의미가 깊다.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2011.08.16. 사단법인 인가 (문화체육관광부 제2011-29호)  
2012.10.02.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166호)  
2018.06.29.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

**조직 구성**

|             |                                      |                               |
|-------------|--------------------------------------|-------------------------------|
| <b>고문</b>   | <b>강성구</b> 前 MBC 사장                  | <b>김용구</b> (주)신동 회장           |
|             | <b>박갑수</b>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b>박관용</b> 前 국회의장             |
|             | <b>조남철</b> 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 <b>최불암</b> 예술인                |
|             | <b>표재순</b> 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중앙문화재단 이사장 |                               |
| <b>총재</b>   | <b>조정원</b>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                               |
| <b>이사장</b>  | <b>위호인</b> (주)뉴플러스컴 회장               |                               |
| <b>이사</b>   | <b>강석재</b>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 <b>박의근</b> 재정위원장, (주)P&H 회장   |
|             | <b>이효정</b> 세계한인여성협회 총재               | <b>장정용</b> (사)한국이집트발견협회 수석부회장 |
|             | <b>조춘연</b> 정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
| <b>운영위원</b> | <b>고용규</b> (주)동우들 대표이사               | <b>심의표</b> 前 KBS 부산총국장        |
|             | <b>이효진</b> 前 주한호주대사관 사무총장            | <b>정순영</b> 前 국회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 <b>감사</b>   | <b>전영섭</b> 변호사                       | <b>박원출</b> 前 한국조폐공사 사장        |

## 주요 활동 내역

2012년 조선족 자치주 설립 60주년 행사 연길 방문  
2013년 서독 광부 파견 50주년 행사 개최  
2014년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 연해주 방문  
2015년 파독(派獨) 광부·간호사 헌신 기념을 위한 독일 뉘스라켄 음악회 개최  
2017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께 태권도 명예 9단증 수여·타슈켄트대학 태권도학과 신설  
2018년 세계태권도연맹과 저개발 국가 태권도·한국어 교육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9년 캄보디아, 네팔 태권도협회에 태권도발전기금 전달  
2020년 스리랑카 태권도협회에 태권도발전기금 전달  
2022년 대한태권도협회(KTA)와 태권도 수련생들의 생명존중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전국 태권도장 대상 '동물사랑·생명존중 캠페인' 전개  
'반려동물사랑 영상 공모전' 개최 및 시상  
'동물사랑·생명존중 시나리오 공모전' 개최 및 시상

이외 재외동포유학생 장학금 수여, 정기적인 소식지 발간(분기별) 및 국내·외 문화탐방,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ICKC는 한국어와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의 국제교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 함께 전 세계 태권도 수련생을 대상으로 '동물사랑·생명존중 운동'을 의욕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바랍니다.



동물사랑·생명존중

JETI 재능교육

지켜주자, 우리 스스로!



# 동물을 사랑하면 우리모두 행복해요!

▶ Taekwondo Animal (태권도 애니멀 TV)